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구강보건교육

김제시보건소에서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171개소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순회를 통하여 치아관리를 위한 전문가 불소바니쉬 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불소바니쉬 도포는 세균으로 약해진 치아표면을 단단하게 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예방효과를 물론 구강 내 세균의 활동을 방해해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시린 이 예방 효과도 높다고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 올바른 잇솔질 방법, 의치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틀니 세정 및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김제=곽태기기자

김제시, 노후 수도계량기 무료 교체 사업 실시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3월부터 관내에 오래되고 낡은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계량기의 유효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구경(13~40mm) 설치 후 8년, 대구경(50mm이상) 초과 설치 후 6년으로 교체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 관내 전 지역의 노후 수도계량기 2,681대를 교체하여, 수도물의 누수 예방과 정확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계량기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면 김제시 상하수도과(540-3531)로 연락하면 된다.

/김제=곽태기기자

김제보건소, 금연홍보 캠페인 전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금산면 원평 장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폐해,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시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은 금산농협 하나마트 앞에서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 영양표시 읽기 안내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명품 금연도시로서 금연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태기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세종 특별자치시 정부청사방문 내년도 추진 사업 설명 예산편성 요청

김종규 부안군수가 2018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세종 특별자치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팀장 및 담당 공무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을 차례로 방문해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유유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 곱소천일염 6차 산업화 등 14개 사업의 사업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통해 2018년 신규 국비사업 183건을 발굴해 실·과·소 검토 및 전북도청 협의를 거쳐 75개 사업을 확정했으며 지난 2월까지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최종 101개 사업을 확정해 2018년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군은 각 실·과·소별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중앙부처 일제방문 주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부처를 찾아가 담당과장 및 담당자를 만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안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집중방문 활동을 부처별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시점인 오는 5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종규 부안군수(사진)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중앙부처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 한발 앞서 발품행정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년 연속 국가 예산 400억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 역사재창조" 강조

부안군의회는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 행정자치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결의안에서 부안군의회는 "중앙정부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중앙 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

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자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안군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어린 꿈나무 체육 인재 양성 총력

정읍시가 각 학교에서 육성하는 경기종목에 체육 인재 양성 훈련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 1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팀 육성 중인 핸드볼, 검도, 축구, 배드민턴, 야구, 씨름, 수영, 육상, 태권도 등 9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본 훈련비와 체육용품 구입비, 대회 출전비, 스포츠클럽 운영비 등 훈련 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읍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체육인재를 양성하는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 7000만원, 2014년 8000만원, 2015년 6900만

원, 2016년 7000만원 등 어린 체육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정읍중동중학교 배드민턴부가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2016년 도민체육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체육인재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라나는 체육꿈나무들이 엘리트 체육인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금산사 '마음쉬는 수요일' 진행

김제시와 금산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음쉬는 수요일'이라는 주제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목 1박2일 동안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번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문화를 향유하고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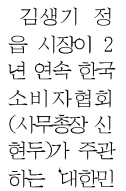
첫째날인 지난 29일에는 마음치유 콘서트와 열렸고, 둘째날에는 백암사 천진암 정관스님의 사찰음식체학과

걷기명상, 미륵전 탁본체험 등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금산사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되어 있는 김제시 관광객에게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태기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김생기 정읍시장이 2년 연속 한국 소비자협회(사무총장 신현두)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다.

정읍시는 김 시장이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선 5~6기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 시장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 구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모두 3153건의 상담 접수와 피해구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르신과 취약계층, 결혼이주 여성 등 피해 우려 계층 1100여명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쳤고, 매주 2회에 걸친 물가조사위원회를 활용한 물가 조사 등을 통해 물가의 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해왔다.

김 시장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수협 서울 왕십리뉴타운지점 개점

부안수협협동조합(조합장 김진태) 서울 왕십리뉴타운지점 개점식이 수협중앙회 임원, 관계 조합장 부안수협 임직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안수협은 현재 14개 은행점포에 상호금융사업 영업구역 확대 및 수익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서울 왕십리에 15번째 은행점포를 이날 개점했다. 새로 개점 된 서울 왕십리뉴타운지점은 천안 백석 지점에 이어 수도권 진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태 부안수협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수협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예탁금 1조, 대출금 8,000억 원, 손익 100억 원의 목표로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 최선봉으로 왕십리뉴타운지점을 개점한 만큼, 고객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수협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특히 "부안수협은 현재 예탁금 6,161억 원으로 전국 8위, 대출금 5,200억 원으로 전국 6위, 2016년 신용사업 결산결과 47억의 손익을 달성해 전국 5위의 성적을 거 양하는 등 복지조합으로 기틀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ad includes the text 'Mulberry Wine' and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he ad also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a large image of a mulberry wine bottle.